

양림동 ‘효자 정려’ 주인공, 양촌 정엄

노성태 원장의
남도인물명적

〈38〉 양촌 정엄

사관의 청천을 받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은 흔히 ‘서양촌’으로 불린다. 양림동이 서양촌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04년 12월25일 양림산 자락, 유진벨 선교사 집에서 열린 첫 예배와 관련이 깊다. 목포 선교부 소속이던 미국 남 장로교 출신 유진벨이 집사 김운수 등의 도움을 받고 정착한 곳이 양림산 자락이었다. 양림동에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와 기독교원이 들어서고 커티스 메모리얼 홀이나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같은 많은 서양 건축물이 남아 있는 이유다.

양림산 자락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광주 정씨 집성촌이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 양림동 ‘효자 정려’와 ‘개비’의 주인공, 양촌 정엄이다.

정엄(鄭淹, 1528-158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문중(文中), 호는 양촌(楊村)이며 본관은 광주다. 1528년(중종 23) 양림동에서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낸 조계(曺溪) 정만종과 안동권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다. 정엄의 부친 정만종의 아호 조계는 양림산 앞을 흘렀던 광주천의 별칭인 조탄(曺灘)에서 연유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광주의 토산물로 대추가 소개돼 있다. 조계는 ‘대추나무 시내’라는 뜻이고, ‘조탄’은 ‘대추 여울’이라는 뜻이니, 정엄이 살던 시절, 광주천 주변에 대추나무가 많았던 것 같다.

정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21년 7월 25일자에 “그(정엄)의 아버지 정만종이 일찍이 보우(普雨)를 칭찬하였으니, 보우가 발탁된 것은 실로 여기에 힘입은 셈이다. 정엄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보우에게 수학하도록 하였다. 그런 연유 때문에 사람들은 정엄을 도리(圃梨)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보우는 정엄의 어릴 적 스승인데, 복실이 깊었던 명종의 모친 문정왕후의 신임을 받은 스님으로 봉은사 주지였다. 당시 절에 들어가 중이 된 총각을 ‘도리’라고 불렀다. 정엄을 도리라고 불렀다면, 정엄이 총각 시절



정엄 효자 정문(광주시 남구 양림동)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가 된다. 정엄이 진짜로 스님이 됐는지 아니면 보우가 있던 봉은사에서 공부했는데 도리라고 불렸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정엄은 1522년(명종 7) 사마시에 장원한 후 1528년(명종 13) 문과에 을과 4위로 급제한다. 내직으로는 사간원 정언, 예조좌랑, 사헌부 지평, 병조정랑, 사간원 헌납, 사헌부 장령 등을 역임했으며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남원부사 시절 으뜸 공무원으로 선발돼 정3품직인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지만, 노모의 봉양을 위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정엄에 대한 당대 사신(史臣)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조선왕조실록’에는 두 개의 평가가 남아 있다. 1565년(명종 20), 정엄이 정5품 사헌부 지평 시절, 홍문관이 사헌부 대사헌 이하 관원들의 체직을 요구할 때 정엄만 제외한다.

“정엄은)사람됨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의논이 적실하고 말이 간명하고 온당했다”라

는 사관의 평가 때문이었다. 1566년(명종 21), 정엄을 정5품 병조정랑으로 임명할 때 “타고난 기질이 온아하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다. 조심해 직에 이바지했고, 규구(規矩, 법도)를 삼가 지켰다”는 평가도 남아 있다.

정엄은 사람됨이 ‘단정’하고 ‘성실’했으며 의논이 ‘적실’하고 말이 ‘간명·온당’했다. 타고난 기질이 ‘온아’했으며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고, 법도를 삼가 지킨 인물이었다.

치적 ‘으뜸’의목민관이되다

양촌 정엄은 내직 뿐 아닌 외직, 즉 지방관으로서의 활약도 대단했다. 정엄이 받은 외직은 여산군수, 남원부사, 나주목사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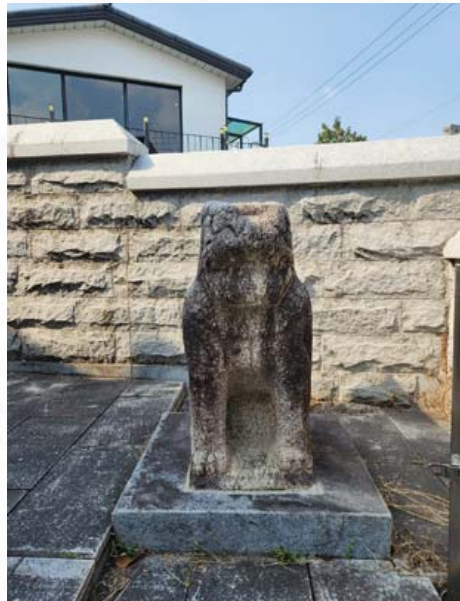
여산군수 시절인 1571년(선조 4) 6월20일 자 ‘조선왕조실록’에 강조하고 명백하게 사건을 심리해 옥송(獄訟, 송사)을 판결할 수 있는 관리로 익산군수 조완벽, 남평현감 이징 등과 함께 선정되고 있다. 성품이 강직했을 뿐 아니라 일 처리마저 명백했다.

정엄이 군수직을 마치자 여산군민들은 그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功德비인 거사비(去思碑)를 세워준다.

1573년(선조 6) 8월1일 전라도 암행을 마친 전라순무어사 신응시가 한양으로 돌아와 선조에게 순찰 지역 지방관에 대한 암행감찰서인 서장(書狀)을 올린다.

그 서장에서 신응시는 “도내 수령의 현부(賢否)·탐렴(貪廉)을 상세히 듣고 보니 이리합니다. 남원은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서 예전부터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부사 정엄은 목소리와 낮빛을 사납게 하지 않아도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따라서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 온경내가 편안합니다. 몇 해 동안 유임시키고 경관으로 차출하지 말기를 바라니, 어리석고 천한 백성이 사체(事體, 사리와 체면)를 모르는 것이기는 하나, 그 성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전라도 땅 중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 남원인데, 남원부사 정엄은 목소리와 낮빛 하나 사납게 하지 않아도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잘 따라 경내가 편안한 고을이라는 보고였다. 전라어사 신응시가 서장을 제출하자, 선조는 정엄에게 자급을 올려주



충견상 ‘개비’(왼쪽)와 충견을 재해석해 만든 캐릭터 ‘배달부 동개비’

도록 명한 뒤 특별히 당상관의 조관(朝冠)에 매다는 옥관자(玉貫子)인 정옥(頂玉)을 하사하고 친서를 내려 위로했다.

소신신과 두모에 비유되다

정엄의 묘지명(墓誌銘)을 지은 분은 성재 유증교(柳重教, 1832-1893)다. 유증교는 화서 이항로의 문하로 당대 이름난 유학자였다. 1880년(고종 17) 정엄의 후손이었던 정인직이 김평묵에게 신도비를, 유증교에게 묘지명을 써 달라고 부탁한다.

중앙 김평묵은 후손의 간절한 뜻에 감동을 받고 정엄의 일생을 정리한 묘갈명을 쓰고, 말미에 정엄의 일생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다음의 시를 남긴다.

“조정에 들어가 흠(勳)을 곳곳이 세우면(入而正劬)/ 노종도, 조변의 풍모가 있고(有魚頭鐵面之風)/ 외직에 나가 백성을 다스리면(出而鳴琴)/ 소부와 두모 같은 은택이 많았다(多召父杜母之惠)/ 이에 선조대왕의 두 말을 새기니(勒茲聖祖之兩言)/ 영원히 증명할 수 있으리라(足徵我公於百世)”

위 시는 ‘중암집’(重菴集), 권46, ‘양촌정공엄묘갈명’(楊村鄭公淹墓碣銘)에 나온다. 시에 나오는 노종도와 조변은 둘 다 송나라 관리였다.

노종도는 성품이 강직해 바른말을 잘했기 때문에 왕의 인척들이 그를 꺼려하여 ‘어두참정’(魚頭參政)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그의 성인 ‘노(魯)’ 자의 머리에 ‘어(魚)’자가 있어 만들어 낸 말이었다.

조변은 전중시어사로 있으면서 권세가나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까지도 거리낌 없이 탄핵하였으므로 철면어사(鐵面御史)라는 칭호를 얻었다. 정엄이 젊은 시절 사간원 정언, 헌납과 사헌부 지평, 장령 등의 요직을 맡았고, 굵은 옥사를 바로잡기 위한 항언(抗言)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평묵이 묘갈명에 쓴 시에 나오는 ‘출이명금’(出而鳴琴)과 ‘다소부두모지혜’(多召父杜母之惠)는 선조가 남원부사 정엄이 치적을 기리면서 글을 내려 표창하는데, 그 글 속에 들어 있다.

‘명금’(鳴琴)은 공자의 제자인 자천(子賤)이 선부(單父)에 수령이 돼 거문고를 타면서 백성을 다스렸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소부’와 ‘두모’의 해택이란, 전한의 인물 소신신(召信臣)과 후한의 인물 두시(杜詩)가 남양태수가 돼 다 같이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를 베풀었으므로, 남양 백성들이 “앞에는 소부가 있고 뒤에는 두모가 있다”면서 두 분의 덕정을 칭찬하고 있다. 정엄이 그 소부와 두모와 같은 으뜸 목민관이었다는 것이다.

‘효자 정려’를 받다

정엄은 남원부사 이후 승정원 동부승지로 승진됐지만 노모 봉양을 위해 나아가지 않자, 노모가 사는 광주 인근 고을인 나주목

사에 임명한다. 나주목사 시절 정엄은 모친의 병을 간호하며 밤늦도록 의관도 벗지 않았다. 몸소 약을 달이고 변을 맞보며 어머니를 대신할 것을 하늘에 빌었다고 한다.

효자 정엄의 이야기는 ‘광주읍지’ 효자편에 다음처럼 나온다.

“어머니 섬기기를 지극한 효성으로 하여 결군(乞郡)하여 봉양을 두루 갖추어 하였다. 어머니의 병에 밤에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고 땀을 맞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자신이 대신 알고 기도하였다. 상(喪)을 당할 때 상제(喪制)를 지극한 정성으로 다하였는데, 지나친 슬픔으로 병을 얻어 1년 만에 졸하였다. 신해에 정려를 명하였는데, 정문(旌門)이 양림에 있다.”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1579(선조 12)년 모친이 별세하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통곡하며 전송하는 자가 끊이지 않고 길가에 이어졌다고 한다.

정엄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사를 치른 뒤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며 무덤을 지킨다.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여위어 이듬해인 1580년(선조 13) 세상을 뜬다. 향년 53세였다.

돌아가실 때 부인이 직접 영결(永訣)하려고 했으나 예에 따라 거절하고 “임금 은혜를 갚지 못하고, 어머니상을 마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엄 사망 32년 뒤인 1611년(광해군 3), 조정은 문충공 이정구의 상소에 따라 그 마을에 효자 정려를 건립하고, 정엄은 종2품 벼슬인 사헌부 대사헌에 추증된다. 이때 건립된 정려각이 퇴락하자 1705년(숙종 31) 개수하였지만, 또 무너진다. 오늘 정엄의 양림동 효자 정려비 및 정려각은 1975년 후손들이 석조로 중수한 것이다. ‘효자광주정공엄정려’의 비문은 정규종이 1953년 지은 글이다. 정규종은 1961년 광주공원에 건립된 ‘대한의사안공증근승모비’의 창립 사실기문도 짓는다.

정려각 앞에는 개 석상이 있는데, 양림동 사람들은 이 석상을 ‘개비’라고 부른다.

개비의 주인공은 정엄이 키웠던 충견이 었다. 이 개는 정엄이 써 주는 상소문이나 각종 문서를 보자기에 써서 걸고 가는 등의 심부름을 했다. 정엄은 개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전대에 엽전을 넣어 목에 걸어주고 한양을 오가며 밥을 사 먹도록 했다. 그런데 주막에서 먹은 것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면 알아차리고 으르렁거릴 만큼 영특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심부름을 다녀오던 충견이 전주 부근의 강변에서 새끼 아홉 마리를 낳고 한 마리씩 물어 날랐는데, 마지막 아홉 번째 새끼를 물고 오다 지쳐 죽고 만다.

정엄은 충견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된 것도 모르고 심부름을 보냈다가, 개가 죽자 크게 슬퍼했다. 그리고 그 녀를 위로하기 위해 개 모양의 석상을 세웠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양림동 상정 버드나무